

#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혁명이다 March 09

• 누가복음 7:22-23

**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말과 같습니다.**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혼탁한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쌀 때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,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러므로 꼭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. “예수님은 누구신가?”, “왜 예수님을 믿는가?”, “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가?”, “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?” 이 질문들을 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.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재해석될 때, 나의 존재 목적과 목표가 조정될 것입니다.

**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, 나의 전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.** 일부분만 받아들여 보수하고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. 의식과 의지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아예 삶의 ‘주체’가 바뀌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내 삶에 실재하시며, 실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.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, 모든 일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(마 1:21, 23).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,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,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며, 나음을 입고 깨끗해지며, 생령으로,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.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

**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.** 예수님의 존재, 그분의 권위와 권한, 선포와 가르침, 명령과 약속들을 믿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, 십자가를 지셨으며,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. 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까?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새로운 삶, 곧 구원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?

---

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?

① ‘그리스도인’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깨닫습니까?

② 예수님에 관한 질문들에 어떤 답을 갖고 있습니까?